

에너지밸리 조성...광주 산업지형 바꾼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산단 구축...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 도시재생도 주도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20여 년 동안 광주 산업인프라 구축은 물론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등을 선도해온 공기업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광주 산업지형을 바꾼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선 6기의 핵심현안으로 꼽히는 남구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 '모든 시민이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넉넉한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 광주의 청사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남구 에너지밸리 조성사업=도시공사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3조 2229억원의 생산유발, 1만4524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오는 등 광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시행될 지역은 남구 석정동, 압촌동 등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20만3000㎡, 추정사업비 2978억원으로 예측된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어르신 '임대주택 환경지킴이' 발대식.



제2기 도시재생대학 입학식.

〈광주도시공사 제공〉

2021년까지다.

에너지밸리는 미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광주를 '에너지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사는 산단을 첨단에너지 특화산업 창출을 위한 R&D 인재양성 및 에너지 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업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국가) 조성사업=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면적 48만5887㎡, 총사업비 1428억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추진된다. 광주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형 사업으로, 도시첨단산업에서 대(大) 전력 중전기 분야, 대용량 신재생 에너지 및 스마트 그리드 등 지역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 에너지밸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

극적으로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사업이 완료되면 대용량 전력변환 기술구축 및 기업지원, 기술물류센터 구축,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입주업체 경제활동으로 신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문제 대안제시=도시공사는 지난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도시재생 활동가 18명을 배출했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시민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구도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도시 공동체가 형성돼 시민 삶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도 상, 하반기 두차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공사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하

는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서구 양1동 돌고개 문화마을의 공·폐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람과 문화, 그리고 예술이 살아있는 마을'을 테마로 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주민들이 중심이 돼 자신들의 삶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주형 셰어하우스(share house)사업도 눈길을 끈다. 광주형 셰어하우스는 북구 용봉동 17세대를 공용부와 전용부로 나눠 실내 공간처럼 리모델링, 욕아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하는 게 특징이다.

도시공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주택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연 게 대표적이다. 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을 위해 각 구별로 매입한 임대주택 75개동 824호의 관리를 지역 어르신 182명에 맡긴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따뜻한 도시공동체 만들기...‘셰어하우스’에 공 들일 것”

조용준 사장 인터뷰

“현재 도시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 미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발전은 앞당기면서 ‘더불어 사는 광주’, ‘따뜻한 광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조용준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람을 중심에 둔’ 인본주의 경영철학을 놓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철학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에 녹

아있다. 이 대학은 도시를 부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에서 벗어나 옛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공사의 도시재생사업도 도시문제를 해결,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소규모 사회 통합형 공동체 주택’은 소(少) 자녀·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100~200세대를 저층으로 건립하는 미래형 주택단지다.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가족과 고령 부부, 독거노인을 배려한 주거 형태다.

“우리사회에서 혈연중심 가족형태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혈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인 사회가족 제도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도시공사가 소규모 통합형 공동체 주택, 셰어하우스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공사 설립 이후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했다. 2015년 결산결과 매출액은 4024억원으로 전년 2723억원보다 무려 4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60억원으로 전년 739억 원보다 16% 상승했다. 이런 성과가 반영돼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64년 전통의 광주·전남 대표신문 光州日報
知識을 넘어 智慧를 공유합니다.

창사 64주년

광주일보 64년, 미래를 밝힐 '100년 신문'으로



3기 원우세미나

3기 홍콩 연수

원우세미나

광주일보 창사 64주년을 축하합니다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이학재 아로마라이프 대표이사) 원우 일동

광주일보는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고품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KWANGJILBO LEADERS ACADEMY